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도시 전주'

시, 도시계획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예방중심 도시안전망 구축 등 도시·건설·안전 분야 5대 역점시책 제시

전주시가 올해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도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8일 도시건설안전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한 도시·건설·안전 분야 5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5대 역점시책은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대변혁 기틀 마련 △예방중심의 도시안전망 구축 △전주형 주거복지 실현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만들기 △치수·이수·친수·생태가 균형을 이루는 하천 조성이다.

먼저 시는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도시계획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11월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역사도시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규제사항을 변경하고, 용적률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및 녹지지역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마련할 예



전주시는 지난 28일 도시건설안전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한 도시·건설·안전 분야 5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정이다. 이후 올 하반기에는 고도지구 결정 기준을 검토하는 등 고도지구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 행정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을 구축하고, 재난상황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높은 주거비와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고 매월 1

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불법현수막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동문길과 객리단길 일원에 대해서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해 도심 가로경관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방안 마련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노후화된 가로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신설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확대하는 등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시는 치수와 이수, 친수, 생태 등 하천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천종합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배회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2023년은 전주 대변혁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도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고전 배움터'

전주시·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시민강좌 수강생 모집

"한옥마을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게 하겠다"

전주시와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이하 교육원)은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고전 배움터' 시민강좌 1학기 과정을 운영된다.

전주시민과 한옥마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논어, 맹자, 노자' 등 한문 강독을 익힐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수강생 외에 새로운 학습자 유입을 위해 한문 독해를 기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초반을 개설해 고전 강독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급반인 논어·맹자반과 고급반인 한시·문집·노자반도 개설돼 기존 수강생들이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1학기 강좌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휴식과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서예반도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고전 배움터'는 6월까지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44개 농업기술 보급 나선다

전주농기센터, 올해 36억원 투입 사업 대상자 최종 확정

전주시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성)는 "2023년 전주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44개 농업기술 보급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전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 농과대학 교수, 연구소, 지역핵심리더 농업인 등 전문인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심의를 통한 농업기술 보급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전주농업기술 보급사업에는 총사업비 36억 원이 투입되며, △농작

업 기계화 2개 사업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 9개 사업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7개 사업 △원예특작 농산물 안정공급 19개 사업 △치유형 도시농업 지원 7개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기후 위기와 농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원예작물 생육환경 개선과 아열대과수 도입을 위한 시범 지원, 도심형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공간 확대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 특화 품목을 발굴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활동을 통한 육체적·심리적인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조아록 기자

전주시 완산구,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위한 특별 점검

대규모 공사장의 초미세먼지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엄격한 완산구정장은 오는 10일까지 관내 대형공사장 17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조치 강화 특별 점검을 시작했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먼지다. 이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완산구는 아직 공정 중 방진 덮개 설치 여부, 신기·내리기 공정 중 살수 시설 설치·운영 여부, 수송 공정 중 세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조직위원회 위촉식

전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조직위원회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조직위원장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 그림책협회 등 그림책계·출판계·교육계·문화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전북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실시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중점 추진 방안을 계획했다. 강 청장은 이 기간동안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 근절과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교육·홍보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교육·홍보에서는 '교통방송,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걸다) 등 안전테마 집중 홍보하고, 등굣길 보행 안전에 대하여도 지도할 전망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및 보·차도 미분리 통화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 계도·단속도 진행한다.

/김영태 기자

제12회 전북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과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오는 4월 21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제12회 전북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전북소방본부와 각 시·군 소방서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올해 학생·청소년 분야에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10명 이내의 인원이 한

팀을 이뤄 참가하게 되고, 제한 시간 8분 동안 심정지 상황 발생 시 대응 행동을 짧은 연극 형태로 표현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된다.

전라북도 대회를 통해 1위부터 3위 팀에게는 전라북도지사상이 수여되고, 1위 팀은 6월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전라북도 대표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국대회에서는 18개 팀에 국무총리상 등 18점이 수여되고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